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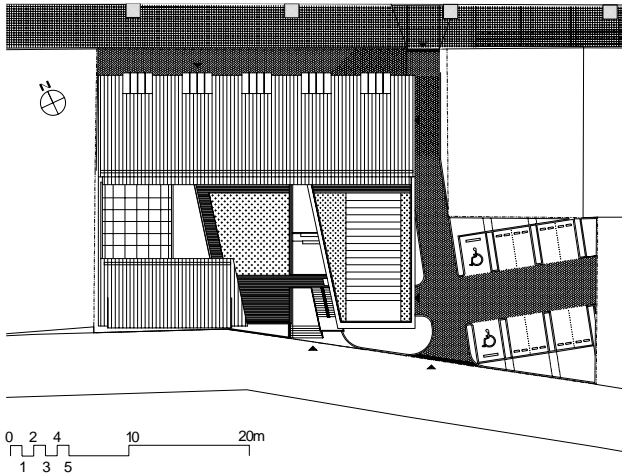
# 남양알로에 에코넷센터

## NangYang Aloe Econet Center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특선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2-4번지
-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중심미관지구
- 용도 업무시설
- 대지면적 1,984,80㎡
- 건축면적 1,1234,74㎡
- 연면적 4,780,1㎡
- 건폐율 56,67%
- 용적률 178,34%
-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신토석벽돌, 24mm투명복층유리, VM ZINC
- 내부마감 올퍼티 · 무광라카, 신토석벽돌 치장쌓기
- 설계담당 장대석, 이종혁, 김형섭, 복성준, 김경민, 이승철
- 전기설비 대경전기
- 구조설계 아키프로넷
- 기계설비 (주)기한엔지니어링
- 인테리어 hna온고당건축사사무소, (주)풍진아이다
- 시공사 대양건설주식회사
- 건축주 (주)남양



- Location 302-4, Seongsu-dong 2-ga, Seongdong-gu, Seoul, Korea
- Site area 1,984,80㎡
- Bldg. area 1,1234,74㎡
- Gross floor area 4,780,1㎡
- Bldg. coverage ratio 56,67%
- Gross floor ratio 178,34%
- Structure R,C
-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six stories above ground







부지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공장단지로 유명한 성수동에 자연을 다루는 회사의 사옥이라니. 북으로는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을 오가는 철로가 2단으로 지나간다. 대략 3층에서 5층에 이르는 높이는 막혀있고 전철을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과 진동은 순간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사람을 압도한다. 남으로 면한 근린공원은 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비어있는 공간이며 자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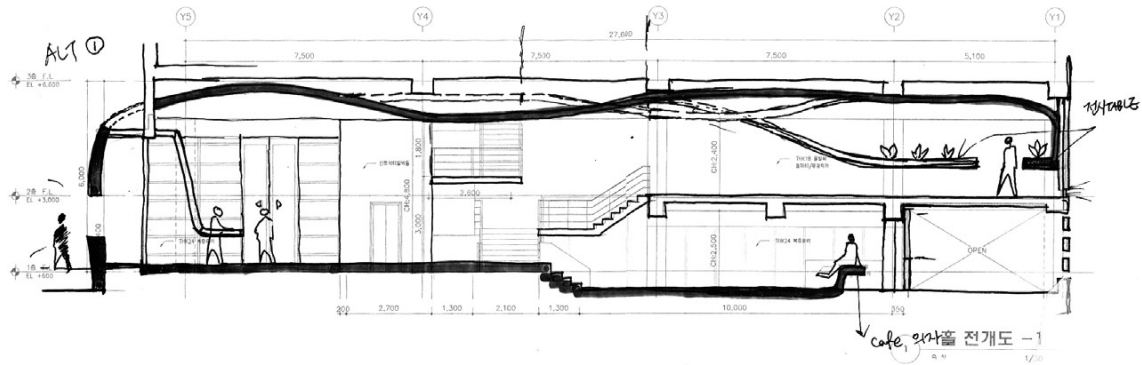
한 장소에서 동시에 경험될 수 밖에 없는 감각을 나누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찾았다. 소리와 진동을 막기 위한 2겹의 중간공간-북측 아트리움과 Heavy Duty Area-은 남측에 면한 사무소공간을 보호한다. 3개층이 뚫린 아트리움은 내부동

선의 진행방향과 바깥쪽 전철의 진행방향이 일치함과 투명한 유리면과 금속패널로 막힌 벽면이 반복된 입면디자인으로 도시의 속도감을 강조하는 공간이다. 길고도 좁게 느껴지는 평면디자인은 외부의 아름답지 못한 풍경을 시각적으로 차단하며 동시에 전철을 탄 승객에게 최대한 노출하는 효과를 갖는다. 각 층 복도에 면한 긴 하얀 벽은 야간의 조명효과나 다양한 수퍼그래픽 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비어있는 캔버스로서 시각적으로 풍부한 교류공간이며 동시에 남양알로에의 브랜드 홍보공간으로 아트리움을 규정한다.

'안과 밖이 결합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과정 중의 불연속적인 경험'은 에코넷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기획의도 중의 하나이다. 건물이 가능하는 기간 동안 사람과 사

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도시환경 간의 교류(communication)를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매체'가 되기를 의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안과 밖에 대한 규정과 구축방식의 결정 그리고 경계방식의 결정 등 전체 건물시스템을 관통하는 큰 틀의 결정이 선행되었다.

에코넷센터는 1층까지 대지로 보아 그 위에 '리'자를 기본으로 한 입체를 구성하였다. 입체를 파내어 비어 있는 외부공간을 만들거나 완결된 듯한 매스에 다른 것을 적층하면서 사이사이에 외부공간을 끼워 넣은,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인 듯 여러 채의 건물인 듯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내부를 걸으며 얻는 실제 경험은 도면이나 투시도로 보는 감과 다르다. 연결된 듯 보이는 매스들의 경계부분 동서측 끝단에 계단을 두고 건물의 남측이나 북측의



복도로 연결하여 그 사이사이에 외부공간이 실제 또는 시각적으로 개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투명하고 균일한 경계면 envelope로 둘러싸는 수법으로 나누어진 여러 채의 건물 사이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연을 다루는 회사의 대상에 대한 관심은 남측 근린공원에 면한 연속된 외부공간을 내부에서 불연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층에서 3층에 이르도록 건물의 외벽에 붙여 4개의 마당을 기획하였다. 직접 연결되거나 시각적으로 연속되는 다양한 보이드(void)는 건물 내부의 여러 공간들을 연결하는 동선(path)과 불연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일종의 노드(node)이다. 내부와 외부의 경험이 교차되며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매스와 매스간의 교류를 암시하는 시시각각의 경험은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과 활성

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각 매스와 그를 둘러싼 영역의 성격은 시설 자체의 프로그램에 의한 것보다 그 시설이 놓인 위치와 연결된 다른 공간과의 관계로부터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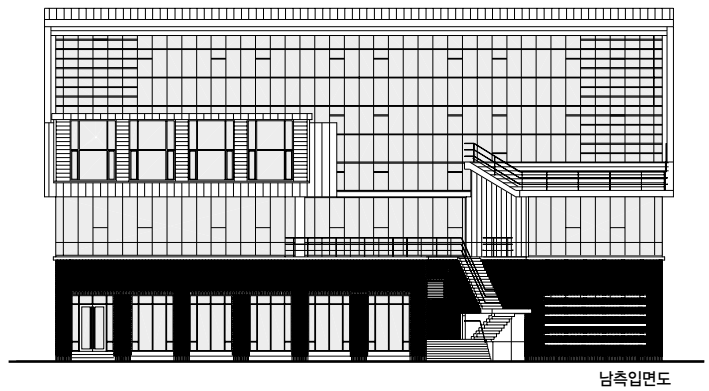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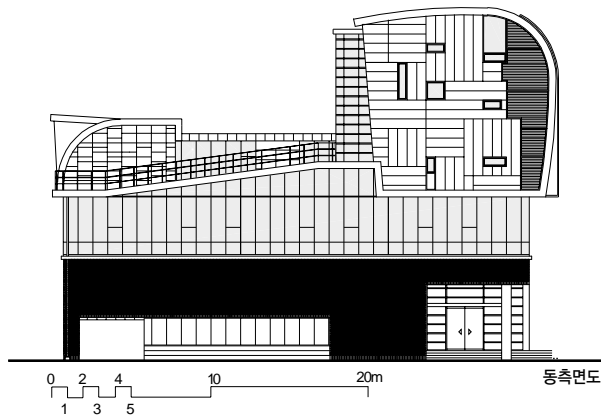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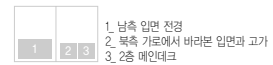
1층은 6m 층고로 로비와 카페테리아, 전시장, 외부마당이 하나의 공간이 되 흐르며 연결되어 다양한 공간감을 갖도록 하였다. 알로에 발이 갖는 자연스런 대지의 선을 형상화한 알로에 라인을 1층 공간의 기조로 삼아 건물의 무게를 아래에 두고 조성된 대지로 보는 해석을 보강하며, 이는 2층 마당까지 연결된 대지로 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층 마당을 'c'자로 둘러싼 투명한 매스는 영업·마케팅부서와 교육장이다.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된 교육장은 완전한 투명에서 불

투명으로 전환될 수 있다.

3층부터는 3개의 다른 매스를 2층 매스 위에 얹어 형성하였다. 일반 사무실 영역(3~5층)과 전략기획·사장실 영역 그리고 옥외 이벤트 마당영역으로 나누는 3층 부위는 1층부터 연속되는 외부공간의 흐름이 완결되는 곳이다.

일반 사무실 영역은 3개층이 뚫린 북쪽 아트리움 atrium을 통해 출입하며, 남쪽은 전면 커튼월 curtain wall로 개방시켰다. 비어있는 아트리움은 지하철이나 대로변에서 에코넷센터를 인식시키는 브랜드 홍보의 공간이며 동시에 소음 진동으로부터 사무환경을 보호하는 중간영역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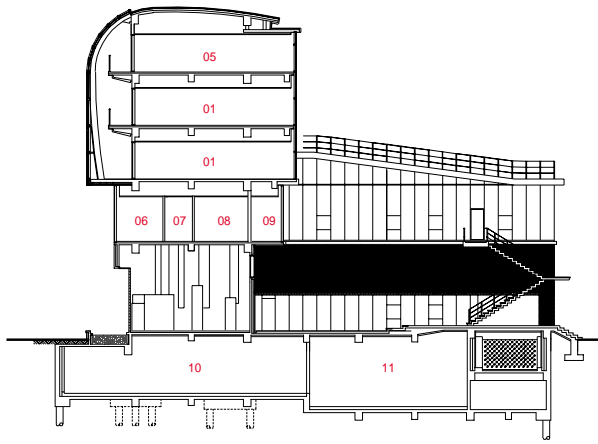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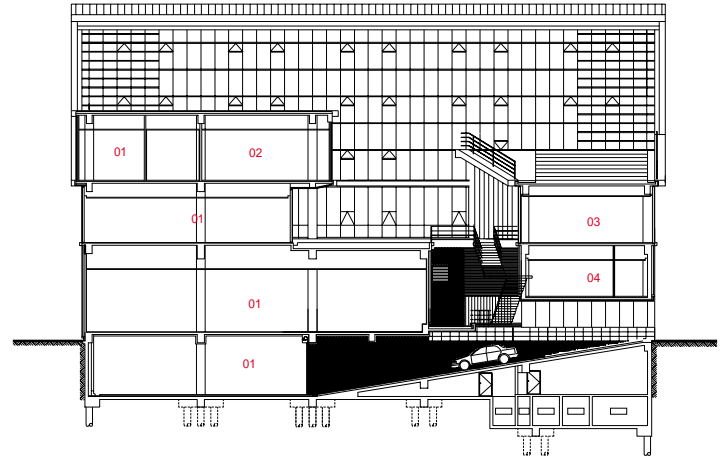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 1. 남측 잔입구
  - 2. 2층 메인데크
  - 3. 동쪽 계단실에서 바라본 외부
  - 4. 툼로에서 바라본 메인데크





- 01\_ 사무실
- 02\_ 사강실
- 03\_ 교육장
- 04\_ 전사실
- 05\_ 임대사무실
- 06\_ 마사지실
- 07\_ 락카
- 08\_ 창고
- 09\_ 복도
- 10\_ 주차장
- 11\_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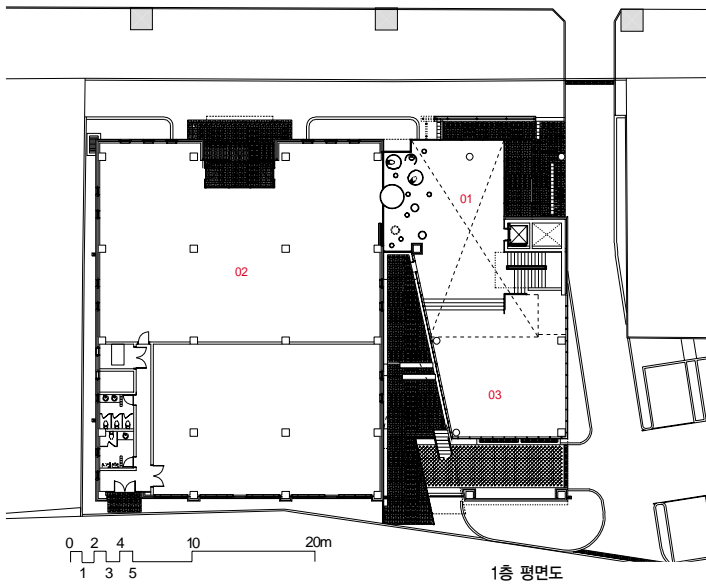


0 2 4 10 20m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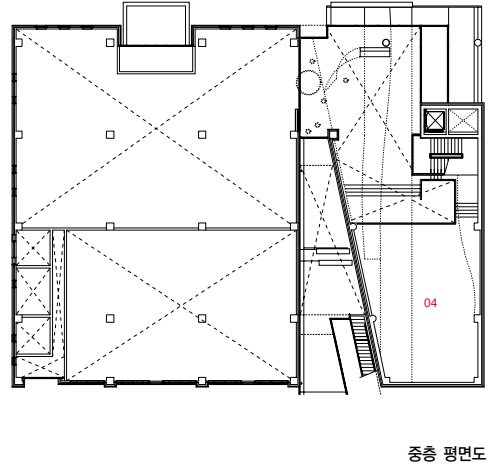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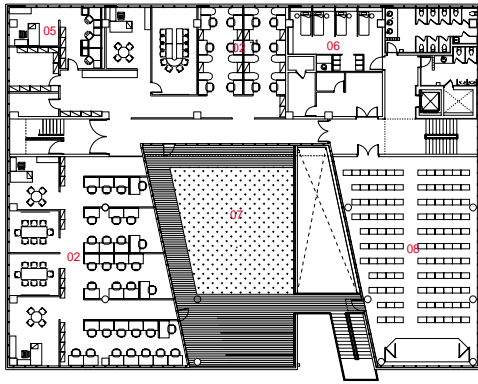


- 01\_ 로비
- 02\_ 사무실
- 03\_ 휴게공간
- 04\_ 전시장
- 05\_ 고객지원실
- 06\_ 마사지실
- 07\_ 옥외마당
- 08\_ 교육장
- 09\_ 부사장실
- 10\_ 통산실
- 11\_ 사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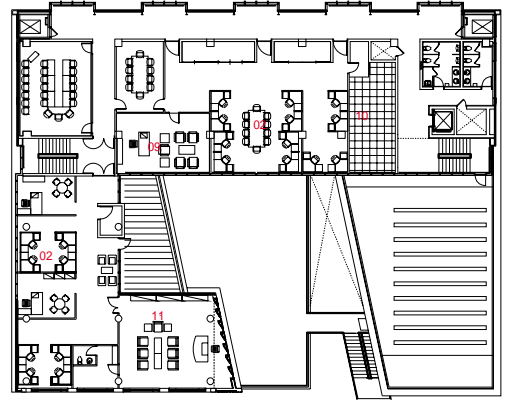


- |   |   |   |   |
|---|---|---|---|
| 1 | 2 | 3 | 4 |
|---|---|---|---|
- 1. 입구에서 바라본 로비
  - 2. 중층 전시장
  - 3. 2층교육장
  - 4. 복속복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